

차기 대선과 우리 사회 주요 문제

■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 주요 문제

- _ 부동산, 기후변화, 지도층 비리, 일자리 순
- _ 2030세대 : 남녀 모두 부동산 높고, 여성층 기후변화 높아
- _ 4050세대 : 남녀 모두 기후변화 높고, 남성층 출산율 걱정
- _ 60대이상 : 남녀 모두 지도층 비리, 출산율 높아

■ 주요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 해결 기대감

- _ 기대감 낮은 가운데, 야권 후보 근소하게 우위
- _ 2030세대 : 남성은 야권 후보, 여성은 여권 후보
- _ 4050세대 : 40대와 50대 여성은 여권, 50대 남성은 야권
- _ 60대이상 : 남녀 모두 야권 후보 우위
- _ 이념별 : 진영대결 양상 속 중도층 야권 후보 우위

■ 대통령 선거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 _ 정치인 접할 때 느낌, 큰 차이 없이 ‘부정적’
- _ 성/연령별 : 문제해결 기대 후보 결과와 비슷
- _ 보수, 진보층 모두 상대 후보에 부정 감정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8월 6일(금) ~ 8월 8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4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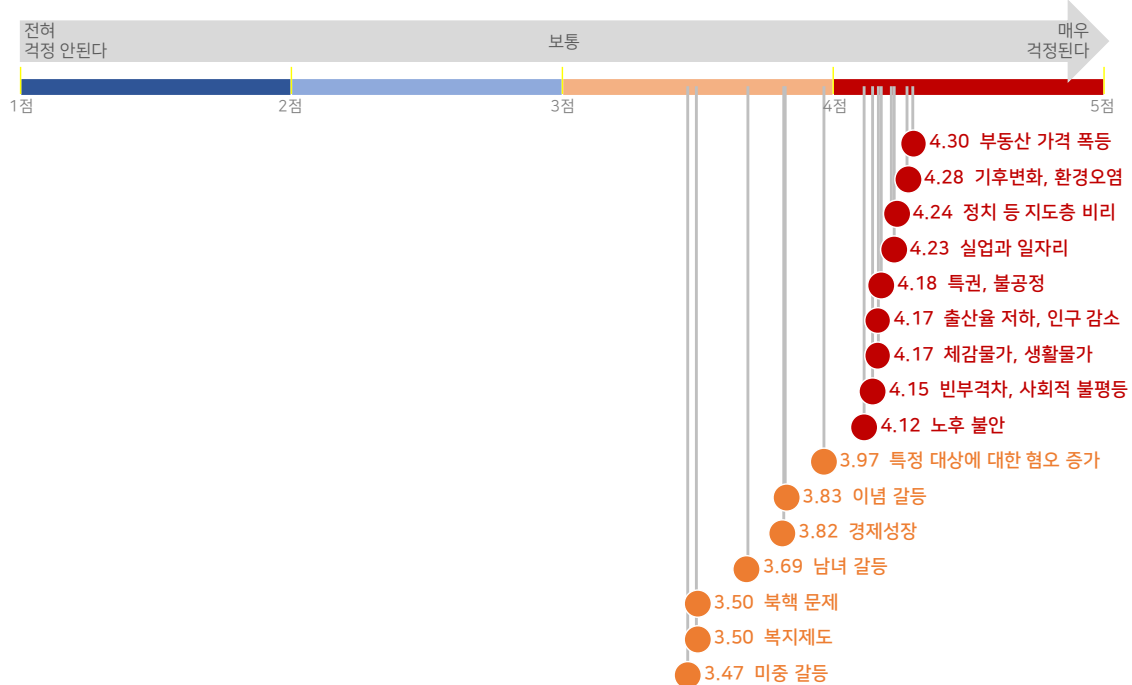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 주요 문제

부동산, 기후변화, 지도층 비리, 일자리 순

-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고, 다음으로 ‘기후변화, 환경오염’, ‘정치 등 지도층 비리’, ‘실업과 일자리’ 등으로 나타남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다음 각각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걱정되세요?”라는 질문 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함
 - 정치·외교 부문 : 정치 등 지도층 비리 / 복핵 문제 / 미중 갈등 / 이념 갈등
 - 경제 부문 : 실업과 일자리 / 체감물가, 생활물가 / 부동산 가격 폭등 / 경제 성장
 - 사회 부문 : 빈부격차, 사회적 불평등 / 남녀 갈등 / 특권, 불공정 /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 기타 부문 : 기후변화, 환경오염 / 노후 불안 / 복지제도 /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의 증가
- 조사는 ‘00 부문’을 삭제하고, 총 16개 문제를 랜덤하게 제시한 후에 각 문제마다 걱정되는 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짐
- 걱정 정도가 가장 낮은 문제는 ‘미중 갈등’이었고, 다음으로 ‘복지제도’, ‘복핵문제’ 등으로 조사됨

우리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 정도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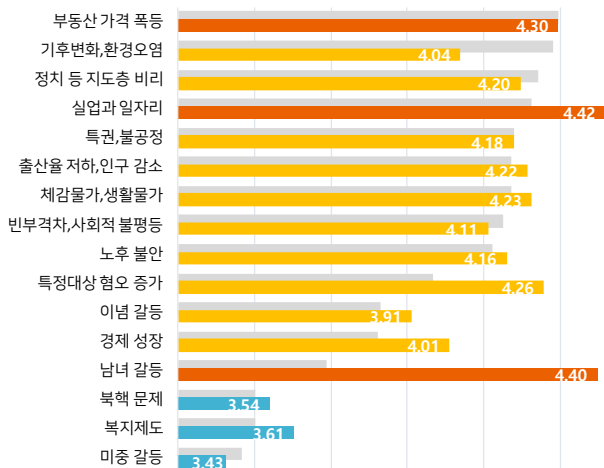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사회가 당연한 최고의 문제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국민적으로도 가장 큰 걱정을 안겨주는 문제로 나타남
 - : 향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각 후보의 정책적 대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 주목되는 점은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점임
 - : 이번 대선에서 크게 부각될 문제로 여겨지던 ‘특권, 불공정’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함
 - : 현재까지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공약을 제시한 대선 후보가 없는데, 이에 대한 정책공약을 제시할 경우 많은 이목을 끌 것으로 전망됨
- ☑ 또한 그동안 대선에서 중심 아젠다였던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특기할 만한 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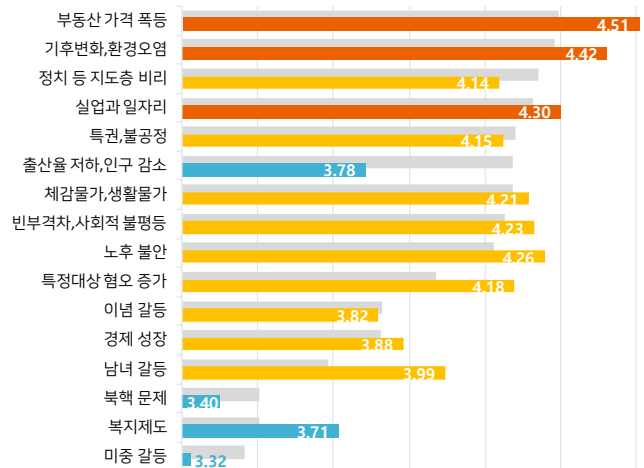
□ 2030세대 : 남녀 모두 부동산 높고, 여성층 기후변화 높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남녀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막대는 국민 전체 평균 점수이고, 주황색 막대는 상위 점수, 푸른색 막대는 하위 점수를 의미함
- 여자 2030세대는 ‘기후변화, 환경오염’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데 비해 남자 2030세대는 순위가 낮음
- 한편, 18~20대는 남녀 모두 ‘실업과 일자리’를 걱정하는 가운데, 남성은 ‘남녀 갈등’이 높은 점수(4.40 점)를 기록했지만 여성은 3.99점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음
- 30대는 부동산 문제 외에는 남녀 간 관심사가 다른데, 남성은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만 여성은 ‘체감물가, 생활물가’와 ‘노후불안’을 걱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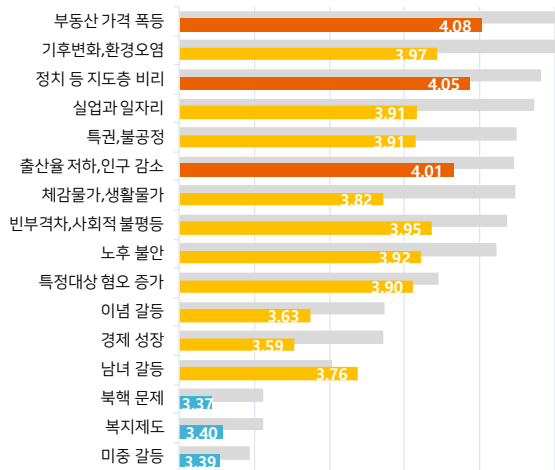
남18~2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1.08.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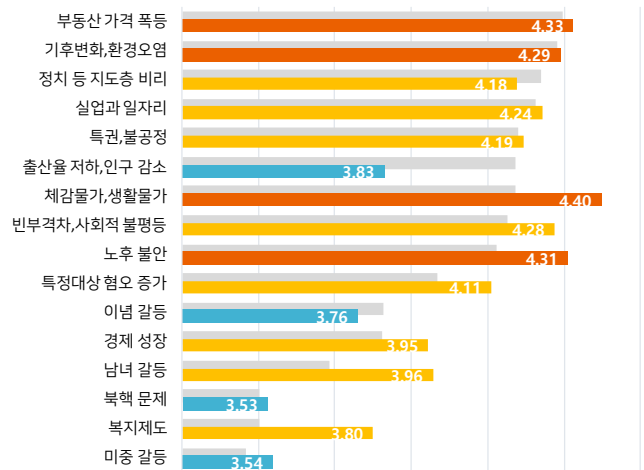
여18~2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1.08.08조사,단위:점)



남3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1.08.08조사,단위:점)



여3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1.08.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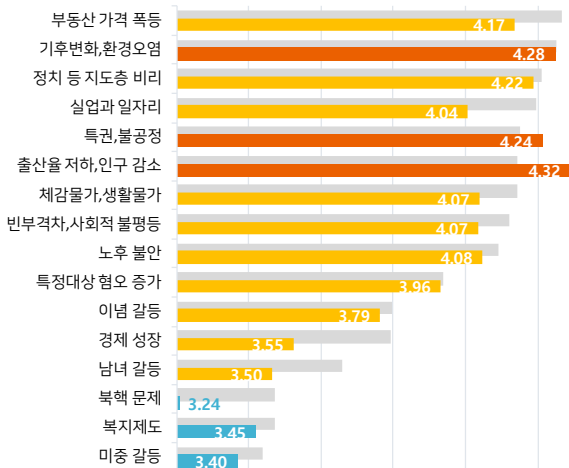
Kstat Point

- ☑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 문제는 국민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4.17점)를 기록하고 남자 2030세대도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여자 2030세대의 걱정 정도는 매우 낮은 점이 특징적임
- ☑ 출산에 대한 여자 2030세대의 종합적인 생각은 **케이스탯 리포트 32호 『2030세대 특집 : 연애·결혼·출산·육아의식 집중 분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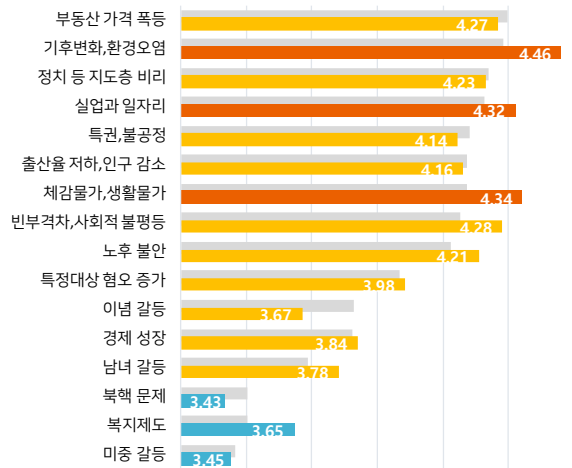
□ 4050세대 : 남녀 모두 기후변화 높고, 남성층 출산율 걱정

- 4050세대는 남녀 모두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공통점을 보임
- 남자 4050세대는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여자 4050세대는 순위가 낮고, 여자 4050세대는 ‘실업과 일자리’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남자 4050세대는 낮게 나타남
 - 또한 남자 4050세대는 ‘특권, 불공정’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 데 비해, 여자 4050세대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음
- 한편, 여자 40대는 여자 30대와 마찬가지로 ‘체감물가, 생활물가’에 대한 걱정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또한 남녀 50대는 함께 ‘정치 등 지도층 비리’를 높은 수준에서 걱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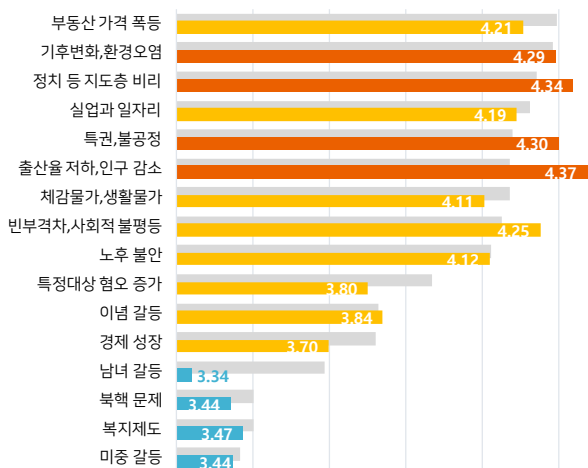
남4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1.08.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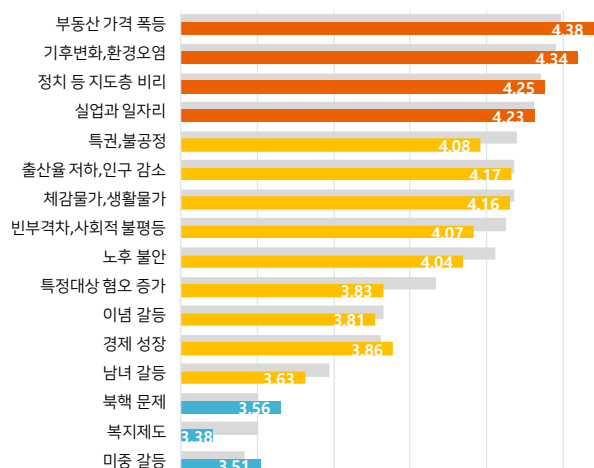
여4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1.08.08조사,단위점)



남5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1.08.08조사,단위점)



여5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1.08.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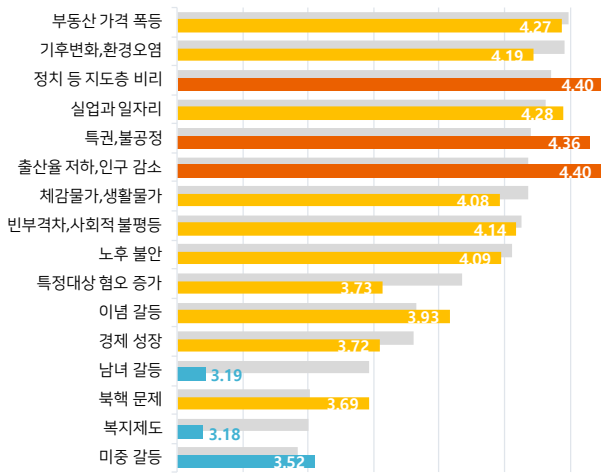
Kstat Point

- ☑ 4050세대의 경우 50대 여성을 제외하면 국민 전체와 달리 ‘부동산 가격 폭등’이 상위 순위에 없는 특징을 보임 : 2030세대의 높은 순위와 비교할 때, 비교적 삶과 거주공간이 안정(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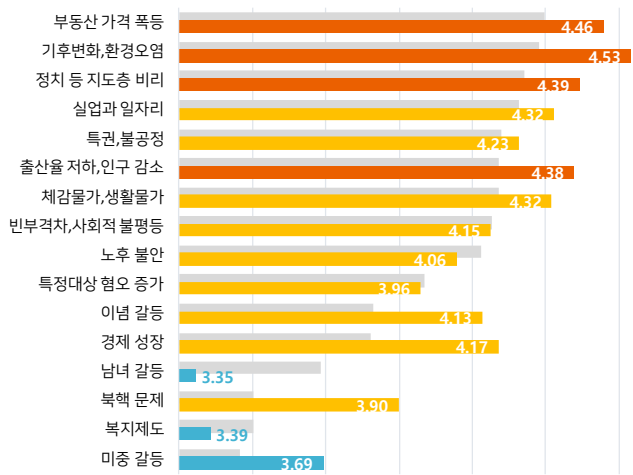
□ 60대이상 : 남녀 모두 지도층 비리, 출산을 높아

- 60대이상 남녀가 공통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인 문제는 ‘정치 등 지도층 비리’와 ‘출산을 저하, 인구 감소’로 나타남
- 남자 60대이상은 ‘특권, 불공정’에 대한 걱정이 높고, 여자 60대이상은 ‘부동산 가격 폭등’, ‘기후변화, 환경오염’이 높은 순위를 기록함

남60대이상, 걱정 정도 평균 점수(2021.08.08조사,단위:점)



여60대이상, 걱정 정도 평균 점수(2021.08.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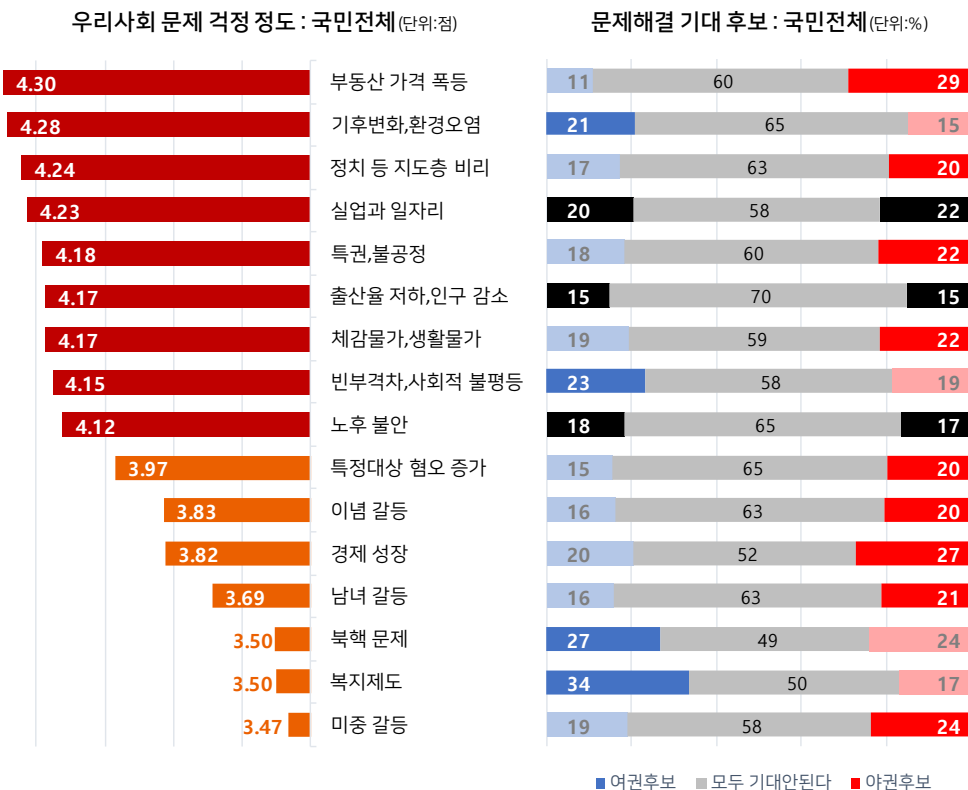
Kstat Point

- ☑ 본 조사는 우리 사회 주요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정도를 파악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중심 문제가 무엇인지 예상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 ☑ 조사 결과에 나타난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 가능한데, 먼저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해결되기를 가장 원한다는 점임
 - ：다만, 2030세대는 해결의 강도가 매우 강하고, 4060세대는 상대적으로 약한 차이가 있음
- ☑ 두 번째는 그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하던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이 하락한 점임
 -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는 ‘경제성장’을 주장하고 진보 후보는 ‘복지’를 주장해 왔는데, 본 조사에서 두 문제 모두 걱정 정도가 하위권에 위치함(경제성장 3.82점, 복지제도 3.50점)
 - ：먼저, 경제성장의 경우 이른바 ‘낙수효과’가 사라지면서 국민들이 경제성장과 실질적인 ‘내 삶’의 연관성이 낮다고 생각한 결과로 보임
 - ：복지의 경우 진보 정부는 물론 보수 정부에서도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당연한 제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렇게 볼 때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성장’과 ‘복지강화’ 아젠다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 세 번째는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높은 국민적 걱정으로,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 아젠다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기후변화, 환경오염’은 거의 모든 성/연령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제를 체감하는 새로운 이슈임
 - ：8월 9일 발표된 ‘기후변화 위기 보고서’(「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발표)는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가 실증적이고 방대한 데이터로 제시됨
 - ：대선 후보 중에서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분명한 정책 공약을 제시할 경우 커다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임

주요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 해결 기대감

기대감 낮은 가운데, 야권 후보 근소하게 우위

- 우리 사회 문제를 여야 대선 후보 중 누가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질문한 결과 ‘모두 기대가 안 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얼마 후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앞서 우리 사회 각각의 문제를 어느 후보가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① 여권 대선 후보, ② 야권 대선 후보, ③ 모두 기대가 안된다는 보기를 제시한 결과임
- 국민적 걱정이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살펴보면, ‘모두 기대가 안된다’는 응답이 60%로 높은 가운데 ‘야권 대선 후보’가 29%로 ‘여권 대선 후보(11%)’보다 높게 나타남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총 16개 문제 중 여권 후보가 우위를 차지한 문제는 4개이고, 야권 후보가 우위를 차지한 문제는 9개, 나머지 3개는 박빙으로 나타남
 -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 짙은 푸른색은 여권 후보 우위, 짙은 붉은 색은 야권 후보 우위, 검정색은 박빙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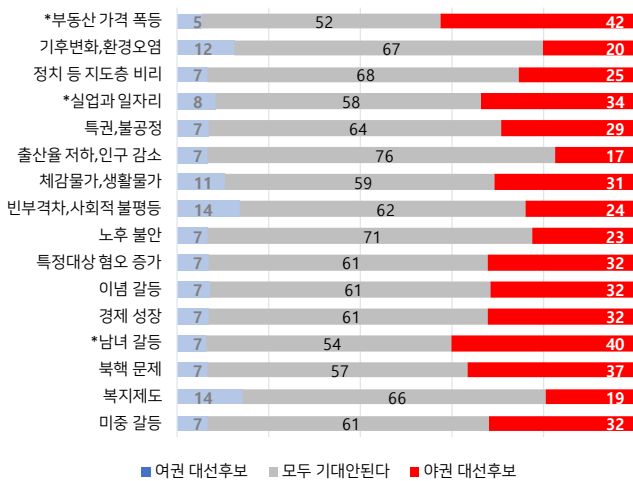
Kstat Point

- ☑ 현재까지 차기 대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매우 낮고, 이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됨
 - : 여권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네거티브와 상대 정책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 : 야권 후보들은 현 정부 비판 외에 뚜렷한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 ☑ 각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모두 기대 안된다’는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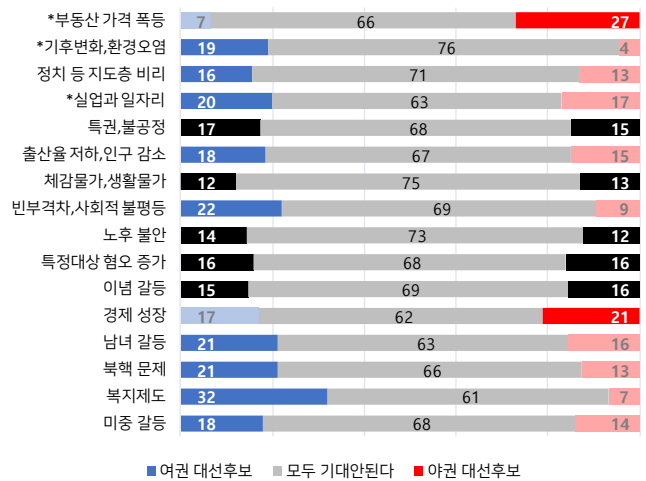
□ 2030세대 : 남성은 야권 후보, 여성은 여권 후보

- 2030세대의 문제해결 기대 후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은 ‘야권 대선 후보’가, 여성은 ‘여권 대선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
- 먼저 남자 18~20대는 16개 문제 모두에 걸쳐 ‘야권 대선 후보’가 우위를 보임
- 남자 30대와 여자 2030세대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우세를 보인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음
 - 남자 30대 : 여권 대선 후보 2개, 야권 대선 후보 11개, 박빙 3개
 - 여자 18~20대 : 여권 대선 후보 9개, 야권 대선 후보 2개, 박빙 5개
 - 여자 30대 : 여권 대선 후보 5개, 야권 대선 후보 3개, 박빙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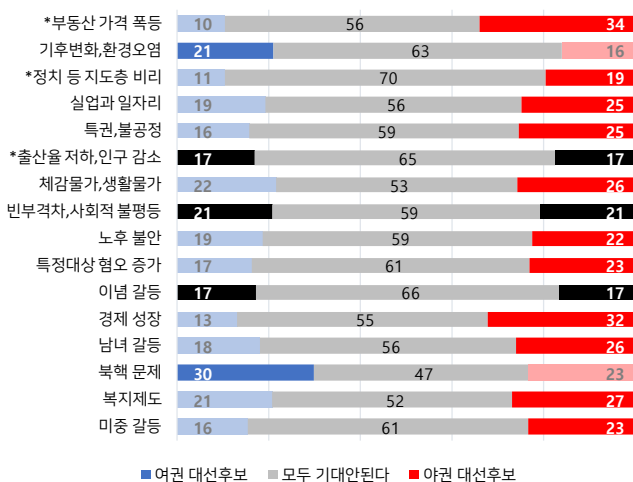
남18~20대,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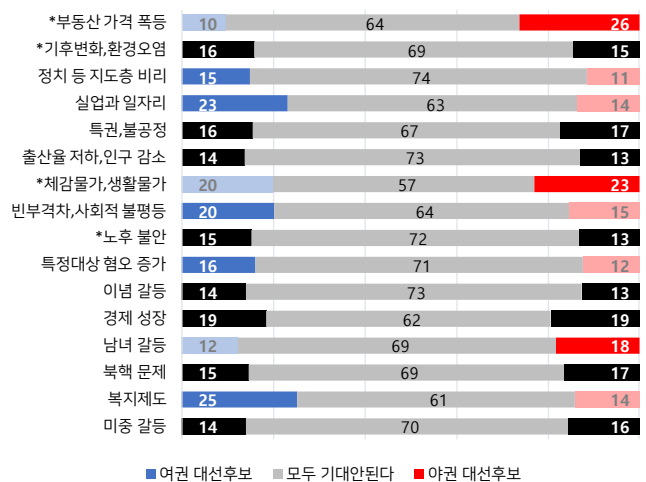
여18~20대,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남30대,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여30대,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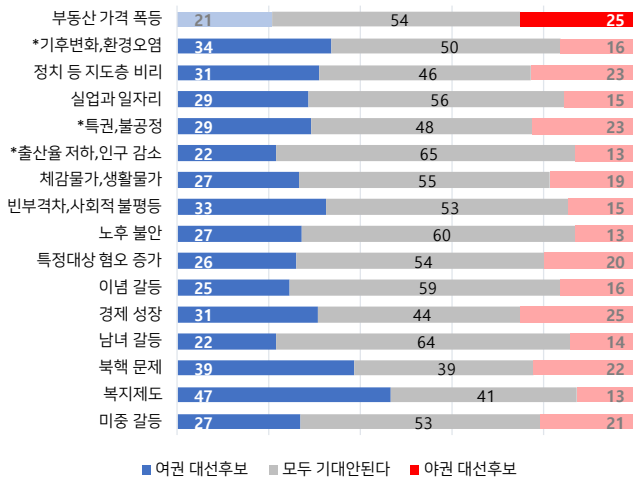
Kstat Point

- ☑ 남자 18~20대는 ‘모두 기대가 안된다’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야권 대선 후보’의 일방 독주 양상임
- ☑ 현시점에서 남자 18~20대는 야권의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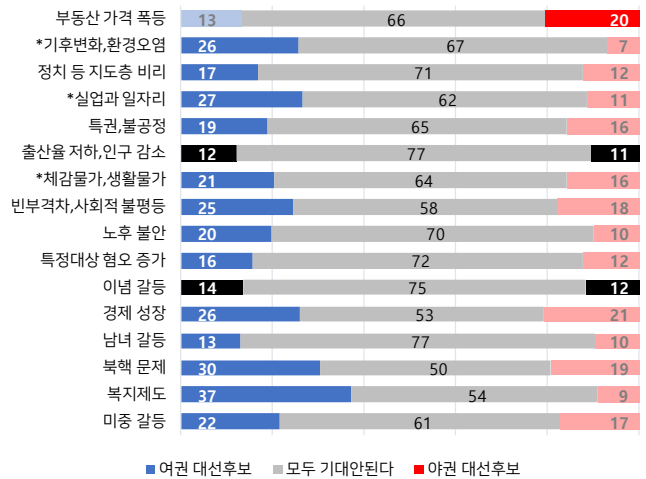
□ 4050세대 : 40대와 50대 여성은 여권, 50대 남성은 야권

- 40대는 남녀 모두 여권 후보의 일방적인 독주 양상임
 -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만 야권 후보가 우세하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여권 후보가 우세함
- 50대는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나타남
 - 여자 50대 우세 수 : 여권 대선 후보 11개, 야권 대선 후보 3개, 박빙 2개
 - 남자 50대 우세 수 : 여권 대선 후보 5개, 야권 대선 후보 6개, 박빙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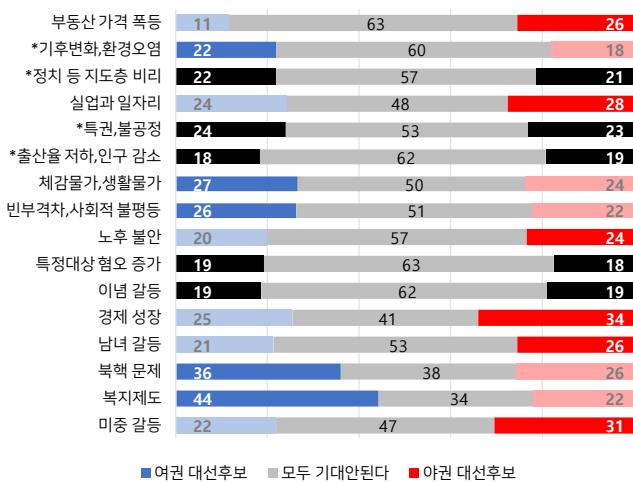
남40대,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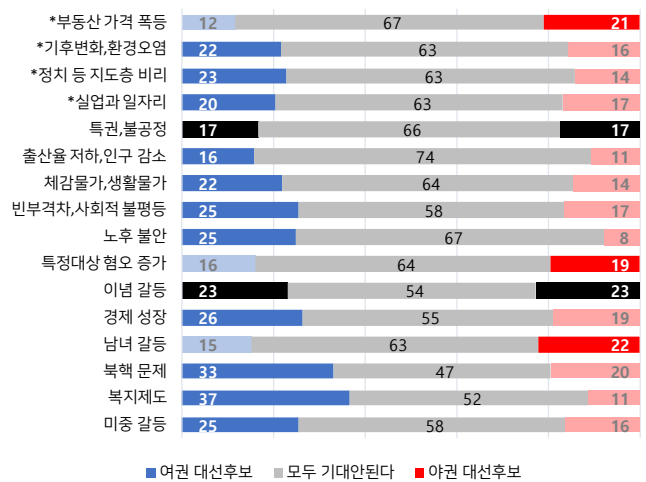
여40대,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남50대,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여50대,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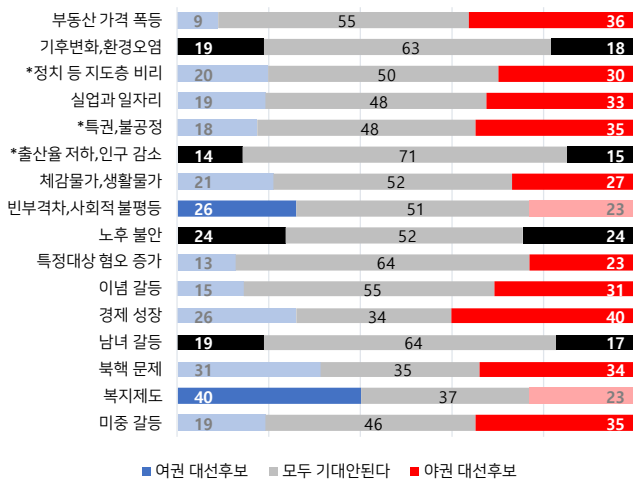
Kstat Point

- ☑ 40대 남녀는 여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보이고, 여권 대선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비교적 강하게 피력함
- ☑ 이에 비해 50대는 다소 신중한 가운데 여성은 여권 대선 후보에 기울고, 남성은 야권 대선 후보에 기울어 양상임 : 다만, 50대 남성의 여야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유동성이 많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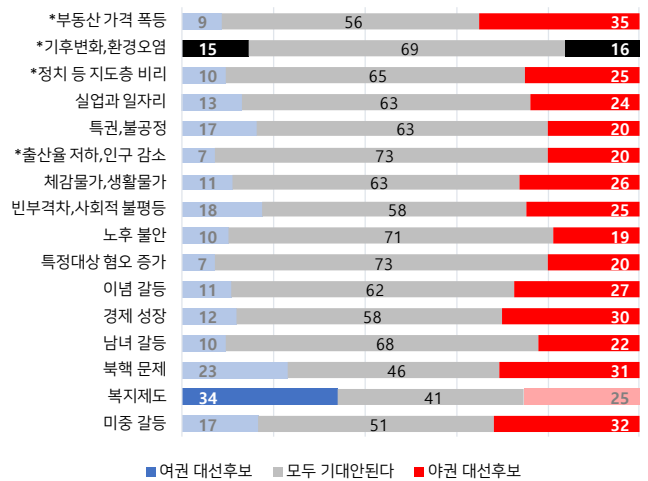
□ 60대이상 : 남녀 모두 야권 후보 우위

- 60대이상 남녀는 모두 야권 대선 후보 우위 양상이 뚜렷함
 -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야권 대선 후보 기대감이 더 높게 나타남
- 60대이상 남녀의 여야 대선 후보 우세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음
 - 남자 60대이상 : 여권 대선 후보 2개, 야권 대선 후보 10개, 박빙 4개
 - 여자 60대이상 : 여권 대선 후보 1개, 야권 대선 후보 14개, 박빙 1개

남60대이상,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여60대이상,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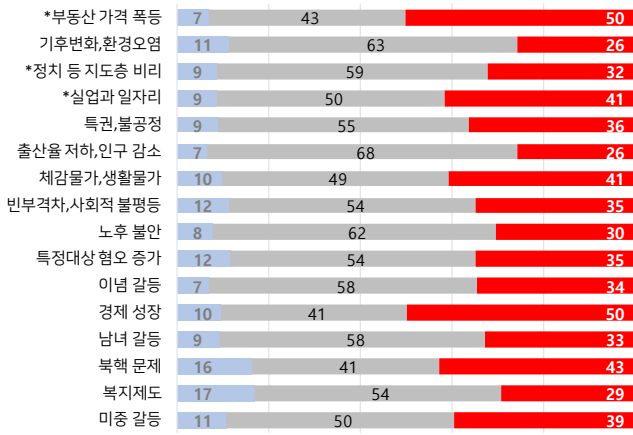
Kstat Point

- ☑ 본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성/연령별로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기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 : 여권 대선 후보 기대, 여자 2030세대 / 40대 남녀 / 50대 여자
 - : 야권 대선 후보 기대, 남자 2030세대 / / 50대 남자 / 60대이상 남녀
- ☑ '모두 기대가 안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때 이러한 구분은 현시점에 제한되고, 향후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 다만, 남자 18~20대의 야권 후보 지지와 40대 남녀의 여권 후보 지지 흐름은 그 강도를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념별 : 진영대결 양상 속 중도층 야권 후보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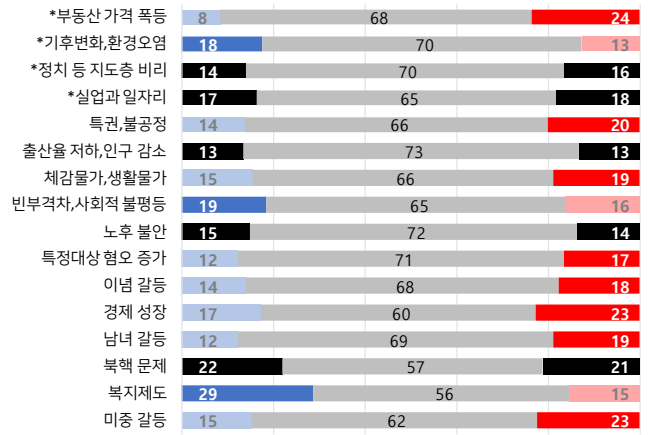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이른바 ‘진영대결’ 양상이 뚜렷함
 - 보수층은 일관되게 야권 대선 후보가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진보층은 여권 대선 후보에 기대를 하고 있음
- 중도층은 여권 대선 후보 3개, 야권 대선 후보 8개, 박빙 5개로 야권 대선 후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보수층,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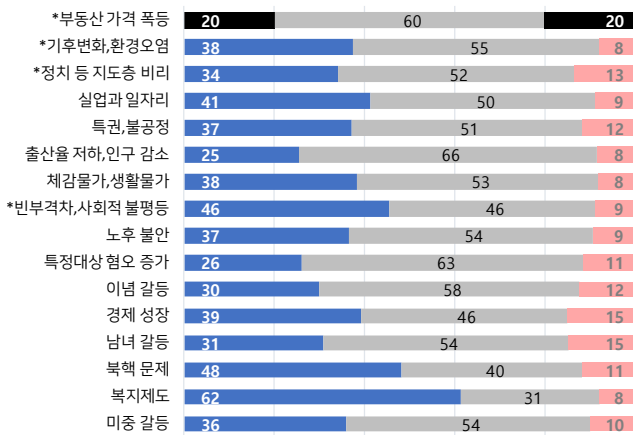
■ 여권 대선후보 ■ 모두 기대안된다 ■ 야권 대선후보

중도층,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 여권 대선후보 ■ 모두 기대안된다 ■ 야권 대선후보

진보층, 문제해결 기대 후보 (2021.08.08조사,단위:%)



■ 여권 대선후보 ■ 모두 기대안된다 ■ 야권 대선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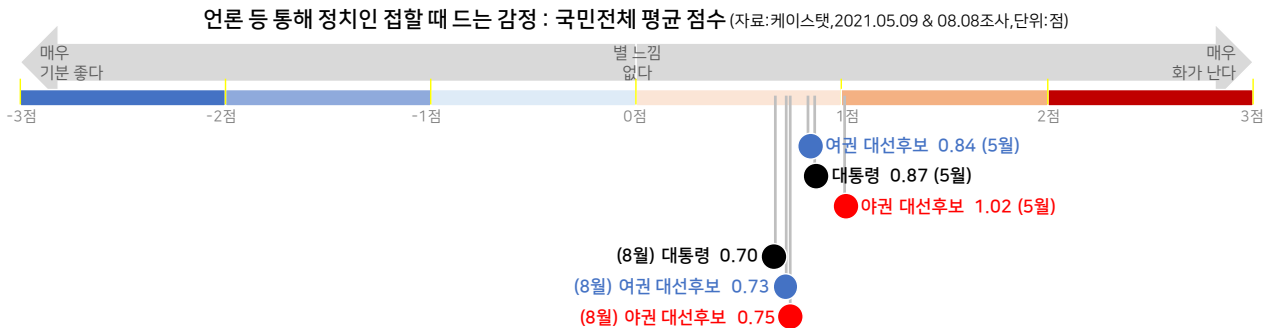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사회는 이른바 ‘진영대결’ 양상이 뚜렷하고,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큰 선거에서는 더욱 ‘진영대결’이 강하게 이뤄지는 경향을 보임
 - :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통령 탄핵’ 아래 치러지면서 보수 진영의 와해로 문재인 후보가 쉽게 승리함
- ☑ 오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보수 vs 진보 간 진영대결이 다시 전면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위에서 보듯 보수층과 진보층은 어떠한 문제든지 자신 진영의 대선 후보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 양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진영대결 양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대통령 선거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 정치인 접할 때 느낌, 큰 차이 없이 '부정적'

- 국민들이 언론 등을 통해 정치인을 접할 때 드는 감정은 '화가 난다'는 부정적 감정으로 조사됨
 - "선생님은 요즘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음 각각의 사람들을 접할 때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라는 질문 후 아래 그림처럼 '별 느낌 없다(0점)'를 기준으로 기분이 좋을수록 마이너스 점수를, 화가 날수록 플러스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임
- 동일한 질문으로 지난 5월에 진행한 결과에 비해 모든 정치 주체에 대한 점수가 낮아졌고,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통령이 0.70점으로 세 정치 주체 중 가장 낮고, 다음으로 여권 대선 후보 0.73점, 야권 대선 후보 0.75점 순으로 '화가 난다'는 부정적 감정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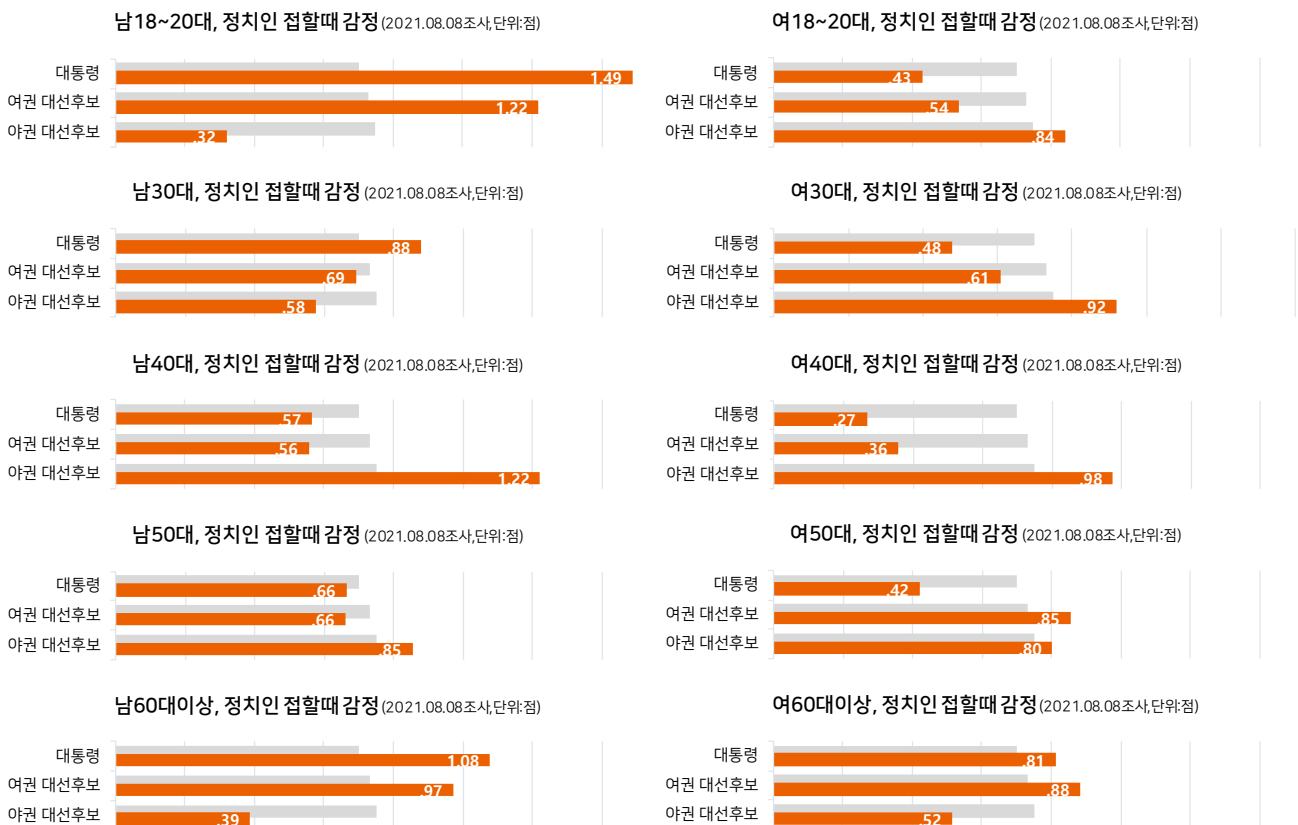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대선 후보 모두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됨
 - :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변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 주장 동의도, 25%
 - : "우리나라 정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주장 동의도, 71%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3호 『민주주의와 개인자유 국민의식 분석』 참고
- ☑ 이러한 국민적 불만은 기성 정치인보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인'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외화됨
 - : 과거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권에 나설 때의 열렬한 지지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을 낳았으며,
 - : 지난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것, 정치적 이력이 전혀 없는 윤석열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 등은 '계기'가 주어지면 분출하는 국민적 불만의 표현들임
- ☑ 차기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이해하고, '기성 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를 주창해야 한다는 지적임
 - : 역으로 '기성 정치인'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임

□ 성/연령별 : 문제해결 기대 후보 결과와 비슷

- 언론 등을 통해 정치인을 접할 때의 감정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평균 점수임
- 상대적으로 여야 대선 후보에 우호적인 계층
 - 여권 대선 후보 우호, 여자 2030세대 40대 남녀 50대 남자
 - 야권 대선 후보 우호, 남자 2030세대 50대 여자 60대이상 남녀
- 앞서 문제해결 기대 후보와 비교하면 50대 남녀 위치만 바뀌었을 뿐 나머지 성/연령대는 동일함
 - 여권 대선 후보 기대, 여자 2030세대 40대 남녀 50대 여자
 - 야권 대선 후보 기대, 남자 2030세대 50대 남자 60대이상 남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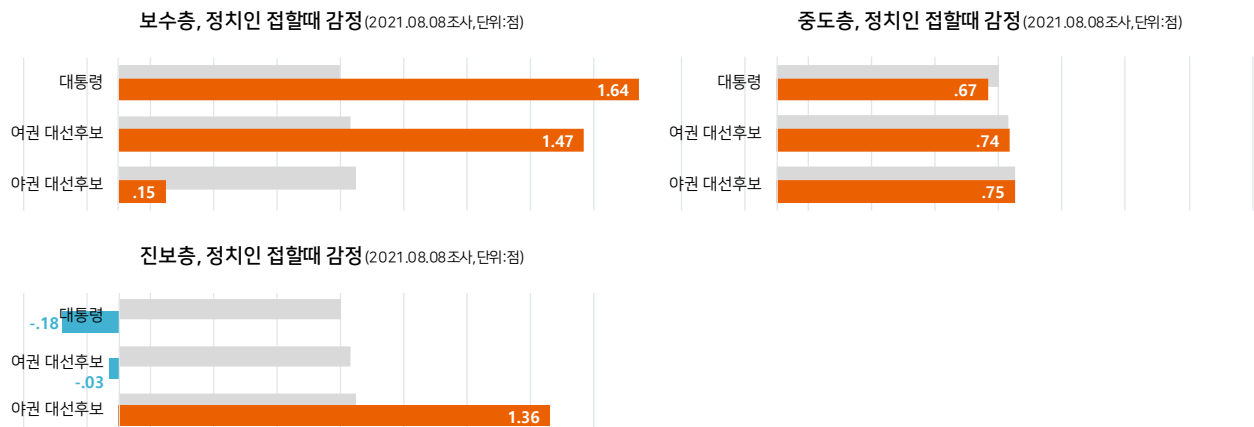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치인을 접할 때의 감정과 우리 사회 문제해결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하는 후보 조사 결과가 거의 동일함
 - : 50대 남녀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다른 성/연령은 동일함
- ☑ 이는 자신이 선호하거나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은 물론 감성적인 판단까지 일치시킨 결과로 보임
 - :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우선한 것인지, 아니면 감성적인 판단이 우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보임

□ 이념별 : 보수, 진보층 모두 상대 후보에 부정 감정

- 주관적 이념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야권 대선 후보에 긍정적 감정(0.15점)을 보이고, 진보층은 여권 대선 후보에 긍정적 감정(-0.03점)을 나타냄
 -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평균 점수임
- 또한 상대 진영 후보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냄
 - 보수층의 여권 대선 후보 감정, 1.47점
 - 진보층의 야권 대선 후보 감정, 1.36점
- 이에 비해 중도층은 여권 대선 후보, 야권 대선 후보에 모두에 매우 비슷한 수준의 감정을 보임
 - 여권 대선 후보 감정, 0.74점
 - 야권 대선 후보 감정, 0.75점



Kstat Point

- ☑ 선거를 앞두고 '진영대결' 흐름이 만들어지면, 자기 진영 후보가 좋아서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상대 진영 후보가 승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형성된다는 지적임
 - : 특히 진영대결 흐름이 전면전으로 치달을수록 상대 진영 후보의 승리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증폭되고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 ☑ 문제는 진영대결 흐름이 강화될 경우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판단은 사라지고, 오로지 진영논리가 우선시되는 감정대결 양상으로 흐른다는 점임
- ☑ 오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질지, 아니면 진영대결 양상으로 치달을지 귀추가 주목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34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34호는 『대선 후보 선호 요인과 여론조사 신뢰도 평가』라는 주제로 8월 26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